

세계사 속의 한국기독교: 그 위치와 과제

유 동 식*

세계사의 맥락에 비추어서 한국의 기독교를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주제여서 두렵기도 하고 거부감도 느낀다. 그래도 우리 자신의 문제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생각을 해 볼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다.

근래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디로 갔는가? 제목을 붙인다면, 「사도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이 어떨까? 달마가 서쪽으로 가서 희랍 로마 문명을 만나고, 사도들이 동쪽으로 와서 유불선 아시아 종교를 만났더라면 양상이 어떻게 됐을까? 기독교도, 또 불교도 필경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튼 사도들은 서쪽으로 향해 갔는데, 그 까닭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가지고 간 기독교는 그 서향의 행로로 인해서 어떠한 세계사적인 환경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고 보니까 기독교와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서진해 간 것으로 생각된다. 지중해 일대를 거쳐, 그 다음에 대서양 일대로 해서 지금은 태평양 쪽으로 와 있고, 어찌 보면 세계문화사의 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기독교가 이와 같이 서진해 왔다고 하는 것, 그 뜻에 대해 생각을 해 보게 되었다.

흔히 하는 얘기지만, 원시 기독교가 서쪽으로 가서 희랍 철학과 로마의 정신 문화를 만나서 교리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성립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교회는 구원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통일된 조직 체계이고 심지어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나라가 결국은 교회에 다름아니라고 하는 입장이 확립되었는데, 그것은 다시 어느 정치적인 공동체 내에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오직 교회에서 가능한 것으로 믿게 되었다. 또한 구원의 내세가 성례

* 전 연세대 교수

(sacrament)라고 하는 교회의 의식으로 연결되다.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할 텐데, 그 방법은 결국 세상을 정복하는 길이라고 믿게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교회의 전승에 속하며, 그 전승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제, 곧 성직자이다. 그래서 이 성례와 전승과 성직 체계 등의 세 힘이 교회를 절대화시키는 중심이 되어 세속정치에 개입한 것이다. 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세속 사회에까지 힘을 미치니까 인간의 이성적인 활동까지도 통제를 하기에 이른다. 예를 들면, 천동설을 고집하면서 갈릴레이를 박해한 그런 식으로 이성적인 활동을 통제하고 지배해버린다. 이른바 기독교 왕국의 무대를 환지중해 시대라고 했는데, 유럽인들의 중세까지 천여년 동안 계속되었다. 흔히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이걸 교회가 인간을 억압하는 억압 이데올로기로 환원된 결과이다. 그 시대의 미개한 백인 사회, 백인 문화를 교화하고 어느 차원에서는 인간화하는 데 크게 공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지는 하나의 부작용 내지는 부정적인 면으로 전개된 것이 교회주의라고 하겠다.

사제라는 것도 미사를 관장하고 신자를 이끌어줄 뿐이지 그 직제 자체가 하늘에 더 가까운 위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른바 만인사제주의, 곧 모든 신도는 다 하나님 밑에서 성령을 받고 소명받은 자라는 이데올로기가 중세를 지배한 것이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잘 알려졌다시피 르네상스와 연관해서 인간의 해방을 도모한 것이다.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이냐 하면 중세까지의 교회주의로부터의 해방, 곧 이성의 해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성의 해방, 교회로부터 해방이 차원에서 추구되면서, 만인사제주의가 인간의 평등권을 지지하는 버팀돌이 되고 이것이 이른바 근대의 비판정신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성의 해방과 성서에 입각한 기독교적 자연 이해가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것이고 따라서 모든 자연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것 둘이 결부되면서 자연은 이른바 하나의 정복 대상이 되고, 이러한 큰 테두리를 바탕으로 이른바 과학기술문명의 발상이 두 번째 시대에 전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중해 연안 시대 이후에는 남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화의 시대, 즉 환지중해 시대가 전개되었다. 지중해 연안 시대를 카톨릭 시대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환지중해 시대는 곧 개신교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문명

의 발전이 세계문화사에 대전환을 초래했는데, 위에서 언급한 그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과학기술 문명이 결부되는 데에서 산업혁명의 출발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산업혁명은 곧 대량생산 체제를 낳았는데, 거기에서는 방임주의 경제의 소수 자본가와 절대 다수 민중의 이권이 부딪쳤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과학적 사회주의를 외치고 나온 것이 맑스의 공산주의 이론이었던 것이다.

지중해 문화 시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에 세속이 함께 결부된 데서 이루어진 문화발전이 상당한 인간해방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부작용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제국주의, 식민지주의라고 하는 비인간화가 성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회모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나온 사회주의는 변증법적 유물론과 관련이 되어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발전했는데, 이런 집단적인 전체주의가 다시 또 개인의 인격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로서 변해버렸다. 중세까지의 교회주의가 가졌던 그러한 양상을 다시 여기서 세속적 이데올로기가 담당한 셈이다. 제1기와 마찬가지로 제2기도 세계문화사에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영향을 끼치고 말았다.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또 서진해서 가는 것이 2차 세계대전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크게 드러난 것이 식민지 해방, 제3세계의 해방이라고 하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국주의의 공식 속에 이미 그런 과정이 내포되어 있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가 해방이 되고 민족국가들이 형성되면서 인간으로서의 주체의식을 찾았고, 이것이 제2문명 시대에서 새로운 제3문명 시대로의 전환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아시아의 해방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제3세계를 연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하나는 아시아의 인구가 막대하다는 점이다. 세계 인구의, 인류의 태반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들이 아시아에 있다. 또 하나는 서구 기독교 문명을 능가한다고 볼 수 있는 고전 문화, 고전 종교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아시아의 해방은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해방과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아시아의 대두로써 이른바 환태평양 시대가 열렸다. 제2 대서양 시대에서 물려받은 과학기술 문명이 아시아의 인구와 전통문화의 가능성에 결부되니까 급속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그 급속도로 가속화된 산업화가 엄청난 경제성장을 초래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전 대서양 시대의 유럽 사회와 미국 사회의 역량을 지금은 능가해 버리게 되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아시아와 미국 사이에 태평양 연안에

서 이루어지는 경제의 규모가 훨씬 커지게 된다. 통계 상으로도 80년도부터 저쪽을 능가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여기에서 이 제3의 시대, 태평양 시대의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나는데, 우선 이 산업화와 함께 일어나는 큰 문제점이 생태학적 위기라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제국주의가 인권을 억압한 것은 인권 차원의 일이었지만,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는 생태학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권 자체에 대한 큰 위협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이것이 제3 시대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흔히 과학기술 문명의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라고 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반드시 환태평양권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는 현상이지만, 새로운 기술, 단적으로 얘기해서 컴퓨터의 발달, 첨단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서구 사회의 독점에서 벗어나 점점 아시아의 독점물이 되어가고 있다. 16메가 칩인가 하는 것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찌보면 놀라운 사건이다. 평소에 적어도 예술에 있어서는 능가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과학기술에서도 일본을 능가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라도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사위가 정보 관계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분야 교수인데, 그 사위에게서 여러 가지 놀랄 얘기를 들곤 한다. 요즘 지구촌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정말 완전히 지구촌이 되어가는 것 같다. 특히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다. 140개국의 300만 대 가량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해서 놀랐다. 이것은 분명히 현대의 특징이다.

세 번째는 이데올로기의 갈등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러시아의 와해가 서구 사회에서는 일단 해체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시아에서도 이것이 쉽사리 해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낙관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생각한다. 단적으로, 태평양 시대에 아시아에서 이북과 중국이 상존해 있는 상황을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태평양 시대에 가장 새로운 요소, 이 시대의 새로운 문명의 요소로 작용하고 부각된 것이 있다면 바로 동양 종교라고 할 수 있다. 대서양 시대의 문명을 창출한 뿌리가 기독교와 과학기술 문명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태평양 시대의 새로운 문명 발상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기독교, 서구문화가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에너지, 곧 동양종교이다. 이 다음 한 천년 후에 역사가가 20세기에 대해 서술한다면, 20세기는 우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투쟁 시기였다고 할 것이지만, 인류 문화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기독교와 불교가 처음으로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눈여겨서 보고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문제는 한국 기독교에 미치는 동양 종교의 영향이다. 이 환태평양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서진해 오던 기독교 문명이 마침내 동양 종교와 만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바꿔서 얘기하면, 지중해 시대를 카톨릭 시대라 하고 대서양 시대를 프로테스탄트 시대라고 했을 때, 이 태평양 시대는 에큐메니칼 시대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체적인 기독교 사상과 아시아 종교의 만남, 바로 그 중심에 한국이 들어앉아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가 일찍이 1931년에 쓴 글이 있는데, 그 책에서 '기독교 제3의 전기'라는 말을 썼다. 기독교에서 인류 문화사를 셋으로 나누어 보는 것은 거의 공식화되어 있다시피 하다. 성부 시대, 이것이 유대교 시대이고, 성자 시대, 이것이 기독교 시대이다. 그 후 세 번째가 성령 시대라고 한다.

제1의 전기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교권 중심 시대를 말하며, 원시 기독교가 로마 문화와 회합 철학과 만났을 때를 말한다. 제2의 전기는 종교개혁을 가리키는 데, 성서 중심의 시대를 말한다. 그 책에서는 문명에 대한 비판도 전개하고 있다. 제1의 전기가 암흑 세계를 낳았고 제2의 전기도 이 세상의 죄악상을 해결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기독교가 제3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 때가 왔다는 것이다. 그것은 교회의 교권으로도 안되고, 성서의 문자 가지고도 안되며, 이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작용하는 시대가 와야 되겠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면 제3의 전기인 성령의 시대를 담당할 민족이 누구겠느냐? 그 때는 일제 치하였다. 그러나 일본 사람은 섬사람이다. 섬사람은 키가 단아하다. 키가 작아 순위가 처진다. 중국 사람들은 주변의 원한을 많이 샀고, 인도 사람은 사상이 좀 공허해서 공중에서 사는 듯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의 중요한 특질을 두 가지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태고적 조상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족속이라는 것이다. 단군 때부터 한국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온 족속이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한국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적어도 30년대의 상황에서는 아주 옳은 얘기였을 것이다. 일본사람들에게 다 뺏겨서 모두들 가난할 때였다.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능히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시대를 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식민지 치하에서 참으로 고무적인 글이었다. 이 글은 오랫동안 내 머릿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 글에서 단서를 얻게 되었는데, 나는 환태평양 시대

에 아시아에서의 종교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찾게 되었다.

어느 국제 콩쿨에서 일등한 어린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야기가 방송에 나오던데 그런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이제는 이름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일본사람은 오자와 세이지, 미도리 정도나 알려졌을 뿐이다. 전에는 한국 사람으로서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를 이름을 열 손가락으로 센다고 자랑을 했는데, 이제는 열 손가락 가지고는 모자란다. 예능계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의 기본 질료(substance)로서의 종교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우리의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하나는 한국이 동서 만남의 중심지라고 하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서구 과학기술 문명하고 동양 종교의 문화가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중심지라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중국도 될 수 있고 일본도 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한국이나 하는 데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일본이 개신교 선교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이 현재 인구의 1%도 안된다. 1억 2천만 인구 가운데 백만 명 정도이다.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제일 선교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상의 비율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보잘 것 없다. 그것은 굳이 공산주의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원래 그랬다. 숫자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을 할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아시아가 중요하게 대두하는 이유 하나가 인구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남한 인구의 20%를 넘는다. 아시아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나는 한국 기독교의 내막을 잘 알기 때문에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일단 치부할 수도 있어도, 또 한면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가 접촉하려면 뭔가 만나는 데가 있어야 할 텐데, 서구에서 대서양을 거치고 태평양을 넘어서 온 기독교가 동양 종교와 만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동양 종교란 보통 유불선을 말하는데, 그 유불선이 우리 역사에서는 500년, 1000년 단위로 우리 민족문화를 형성해 왔다. 이것은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아주 다른 점이다. 더구나 그것들이 현재 살아 있다고 하는 것, 불교 인구가 개신교 인구가 늘 쟁쟁할 정도로 한국의 종교 인구를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유교는 통계로 낼 수 없는 바로 우리들의 일상적 심인유전자를 이루고 있는 종교 현실은 전세계에서 한국만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다. 이 동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우리 민족문화를 만들고 현재 살아 있다고 하는 이러한 점에서, 결국 동양종교와 기독교 내지 유교문화가 만날 수 있는 장소란 바로 여기가

아니냐고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대서양 문화가 유산으로 남긴 모든 문제 거리를 다 짊어지고 앉아 있다 하는 점이다. 우선 우리에게 뼈아프게 와닿는 것이 남북분단이다. 세계의 갈등이 그냥 살아서 남아 있는 유일한 분단국이다. 이것은 민족간의 갈등하고는 다른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성격이 더 짙은 갈등이라는 점에서 세계사의 문제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문명과 생산 경제활동과 결부된 산업화로 인해서 생태학적 위기가 인류의 문제로서 초래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데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개천이 모두 오염되어 있다. 산업화-경제성장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이처럼 심각한 부작용, 이러한 인류의 무서운 공해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이다. 핵무기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핵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겨우 한 개가 있다고도 하고 아니면 이제 만들려고 한다는데도, 왜 한반도에서는 세계가 달라붙어서 이 문제를 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기이하다. 우리의 움직임에 세계의 신경이 곤두서는 모양인데, 그만큼 우리에게는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잘은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핵연료를 프랑스에서 몇 톤씩 새로 들여오는 데도, 그것은 말썽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가 너도 나도 나서서 것을 보면 6·25때 세계가 너도 나도 거든 것과 비슷한 일이 또 생기는 것 같고, 묘한 그 무엇이 있기는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아무튼 세계 문명의 열쇠가 한국에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30년대 신학자의 글에서 태평양시대, 제3의 시대에 문제 해결과 동시에 새로운 문명의 어느 짝이 틀 곳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한국이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통찰이라고 생각한다. 1930년대에 그런 걸 썼으니 다분히 예언적인 이야기였다고 느끼기까지 한다.

세 번째로, 한국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과제가 무엇이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다. 오늘의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문화 내지는 문명 발전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과제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기독교가 종교로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들의 문제가 대서양 문화 시대의 유산이었다고 생각하고, 대서양 문화는 내부적으로 프로테스탄트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오늘날 한국의 종교, 한국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과제,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계관 문제와 결부된다고 본다.

한국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세계관은 모색하는 것이 우리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기독교의 세계관이라고 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간단히 말하여 구원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는 르네상스 시대의 새로운 환경을 계기로 한 번 개혁을 맞았었고, 오늘날의 새로운 환경이 무엇인가, 한국에서 기독교가 맞이해야 할 새로운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동양 종교와의 만남이 바로 그것이며, 또 하나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양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대로 우리의 종교사인데, 한국의 종교사는 한국이라는 藁木에 접목된 하나의 거대한 수목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접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목이 있고 거기에 새순을 붙여 키워나가는 것인데, 한국의 종교사를 그런 접목의 모양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다원적인 종교들은 구원의 패러다임이 다 다르다. 불교의 구원 패러다임, 유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화의 패러다임, 도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화 내지는 구원의 패러다임이 모두 제각기 다른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민중 문화에 자꾸 접목이 되어 우리 종교사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수목, 생명있는 나무를 키워냈다. 여기에 두 가지 현저한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 접목이라고 하는 특징이다. 상호 작용하고 있다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 종교를 하나의 생명의 나무로 보았을 때, 우리의 대목과 외래 종교들 사이의 상호 작용에서 생기는 생리적인 변화는 그 외래종교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다.

종교 사이의 그러한 상호 생리 작용은 곧 우리들의 종교경험이 갖는 지평 융합이다. 유교는 불교와의 지평 융합, 종교경험에 있어서의 지평 융합을 통해서 보다 넓고 깊어지게 되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경험의 세계는 다른 어느 민족의 것보다도 깊고 넓은 것이다. 이것을 각자가 의식을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영성의 차원 깊은 곳에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의 세계에 작용하며, 그래서 인격과 직결된다. 문화가 바뀌었다고 종교도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남아 있고 그것이 다시 쌓이고 다시 쌓이고 해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경험의 세계가 엄청나게 넓어진 것이다.

기독교가 한국의 종교사에서 특히 중시해야 할 것은 기독교 이전에 유교, 불교 등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종교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준 그 깊이, 그 논리라고 본다. 한국 기독교에서 자유, 사랑을 말할 때, 그 자유와 사랑의 개념에는 유교에

서 말하는 君子라든가 불교에서 말하는 空이라든가 하는 개념과 연관해서 축적되어 있는 우리들의 종교적인 생명력이 이미 뒤에 깔려 있기 때문에, 서구 기독교의 단일 종교문화적 경험과 일치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는 그 臺木을 잘라 버리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에게 엄청난 종교적인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을 잘라 버리겠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의 진리 복음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한국 종교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서구 문화권에서 형성된 합리주의, 거기다가 라틴 문화 계통에서 나온 신앙, 그리고 20세기 신학까지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방향 착오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 살펴 보겠다. 나는 이 한국의 영성이라는 것을 風流道로 본다. 최치원 선생의 표현을 흉내내자면 '이 나라에 깊고 오묘한 영성이 있는데,' 나는 이 영성이라는 말과 道라는 말과 열이란 말이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본다. 孤雲 선생은 우리의 열, 풍류도라고 하는 것은 동양 종교의 진수, 곧 유불선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했는데, 碑文이니까 긴 이야기는 쓰지 않고 풍류도가 낳은 윤리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한 것이다. 여러 가지 윤리만 간단히 얘기했지만,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세 종교의 종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 공통의 종지란 바로 인간화이다. 인간화한 것, 그것이 바로 열이다. 열이 있어야 사람이지만 열이 빠지면 열간이가 되지 않는가? 세계화에 대해 오해인지는 몰라도, 가장 걱정되는 것은 자기 열은 다 없고 모두 열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빨리 해치울 궁리만 자꾸 하는데, 그러다가 열간이만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풍류도가 지니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臺木이다. 종교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에는 객지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영성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다. 先理解 없이는 아무것도 이해 못한다. 더구나 이 대목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공급처이다. 흔히 身土不二라고도 하지만, 생명은 땅에서부터 공급되는 것이다. 그 생명 속에는 유전인자가 들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통 불교를 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한국적인 불교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모든 종교가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편, 한국에 들어온 외래 종교들은 모두 교조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공통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공자님 제자를 보려면 중국에는 없고

한국과야 볼 수 있다는 말도 있고, 아주 교조주의적인 공산주의를 보려면 북한에 가야 되고, 또한 중세기의 기독교 윤리를, 대서양시대의 정통파 기독교 신학을 보려면 한국에 오면 된다고 한다. 교조주의적인 성격이 한국 종교사의 유전인자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종전 나쁘진 한국의 영적인 생명 공급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인자가 바로 한국 종교사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동양 종교와 서양 종교가 그야말로 제 모습 그대로 만나는 것은 한국에서만 가능하다. 한국 기독교는 한국 종교사를 적어도 이러한 차원에서 만나야지, 불교 경전과 유교 경전, 그리고 성서를 나란히 펼쳐 놓고 만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만남이 안되겠다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종교사는 일종의 살아 있는 나무라 할 수 있다. 접목을 거듭하면서 품종이 개량된 하나의 나무이다. 그런 접목과 같은 만남이 되어야 한다. 흔히 동양 종교와 기독교의 만남을 문제삼는데, 내 생각에는 한국에 있어서의 만남은 세 가지, 기독교와 동양 종교, 그리고 한국인의 영성, 적어도 이 셋이 만나는 것이다. 그런 만남은 현실적으로 그냥 대화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 같다. 유교와의 만남에 대한 책이 서구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이 과연 산 유교인가? 동양에서 산 유교인가? 물론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지만, 한국에서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 있는 만남이며 새로운 만남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包含三教한다는 말에서 많은 매력을 느낀다. 1962년인가 「한국사상의」라는 잡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김범주 선생이 풍류도에 대해서 쓴 글을 보고서 내가 다시 부지런히 「삼국사기」를 뒤져 보았다. 그전에는 「삼국사기」를 읽을 때 전체 흐름만 자꾸 보았지 그 대목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었다. 아무튼, 한국인의 영성 가운데에는 包含三教, 執一舍三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대종교에서도 그런 말을 쓰는데, 지금도 우리의 영성만 파악하면 동양 종교의 핵심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시범적인 작업으로서 동양 종교와 만난다고 하는 것이 왜 풍류도와의 만남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려고 애써 왔다.

풍류도가 무엇인가를 지금 석 달 동안 강의하고 있는데도 오리무중이다. 경전이 주어져 있다면 쉬울 것이다. 요즘 몇 주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천부경」이다. 근래에 꽤 유행하면서 번역본도 여러 개 나온 것으로 하는데, 「천부경」은 도교의 문헌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풍류도의 경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풍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신화, 종교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설명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았다.

「천부경」은 민간 전통의 경전이지만, 그래도 내용이 참 좋다. 단군의 가르침을 神智가 篆字로 썼는데, 그것을 최치원 선생이 한문으로 번역해서 태백산 꼭대기 바위에다 새긴 것이라고 한다. 단군과 최치원, 민간 전통이 갖는 신빙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사상사에 있어서는 민간 전승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민간 전통이라는 것은 민간의 의식에서 형성되고 전승된 것이다. 신화가 우리들 의식의 공동 제작이라고 한다면, 누가 저작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가령 아리랑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민속성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관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천부경」도 일단은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 전승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민족이 가장 기묘묘한 영성, 즉 玄妙之道를 가지고 있다고 한 최치원의 말과 단군을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는 것이 천부경의 배경이며, 그 구성은 모두 81자이지만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가는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 처음의 세 구절이 전체를 집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뒤로는 그 세 구절을 다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첫구절인 “一始無始一”은 “하나로 비롯되되, 비롯됨이 없는 하나다”라는 뜻이라고 해석된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게 본다. “하나님”이라면 天字를 썼을 텐데, “하나”라고 한 것이다. 그 뜻에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현실을 보고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를 내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空이라든가 道라든가 하는 초인격적인 실재를 말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자연과학에서 최대 과제가 빛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빛은 실험하는 방법에 따라서 파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입자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한다. 파동과 입자는 대립적인 것 같은데, 빛은 어느 각도에서 접근해 가느냐 하는 그 실험 방법에 따라 파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도 입자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상보성 (complement)의 원리라고 한다. 빛을 파악하려 하면 상보적인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부경」의 이 첫 구절도 여기에 딱 들어 맞는다. 단군의 가르침에,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비롯되되 비롯이 없는 하나라고 말한다.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종교경험이라고 하는 접근 여하에 따라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동양적인 초인격적인 도나 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

각을 해보았다.

그 다음 구절은 “析三極”이다. 삼극은 天地人 三才, 우주를 얘기하는 것인데, 폰다고 하는 析字를 왜 썼을까? 자기 계시, 자기를 풀어 계시하는 것으로써 삼극, 천지인 삼재의 존재를 말하는데, 자기를 풀었다고 하는 것은 근본은 변화함이 없이, 초월적인 근본은 그대로, 그 안은 그대로 있는 채, 이 삼극을 풀어낸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인 실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이것을 창조라는 말로 경험을 한다. 기독교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한편, 緣起를 말하거나 無極에서 太極이 나온다, 또는 “도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가 둘을 낳으며”(道生一一生二) 운운하는 동양 종교 철학에 있어서는, 이것이 창조라는 개념이 아니라 생성과 진화라는 말로 경험된다.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우주 진화 같은 것이다. 빅뱅(Big Bang)에서부터 시작되어서, 200억년 동안에 무기체에서 지구의 생명체, 바이어스페어가 생기고, 생명체에서 누스페어, 즉 인간 정신권이 생겼다고 한다. 그 다음에 나는 플머스페어라고 표현하는데, 영원의 체험이 나왔다고 본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인가? 신화 과정을 통한 창조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연과 인간은 내가 실험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주에 균형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과학자들의 얘기를 여기서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깐 자연을 파괴하면 자살 행위이다. 이것은 오히려 불교의 자비 개념과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는데, 내 기쁨이 내 기쁨이고 네 고통이 내 고통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괴로움을 뽑아버림으로써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내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다. 同情, 즉 정을 같이 한다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이것이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뒷받침됐더라면 무질서, 무자비한 자연착취와 자연훼손, 산업 쓰레기 같은 것은 재고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요즘 골프장 허가해 주는 것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난다. 그렇게 해서 산을 자꾸 깎아버리는데, 거기에다 뿌리는 농약 때문에 그 일대가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면 기가 막힌다. 생태학적 균형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의 문을 닫고, 순전히 뇌물 먹고 주고 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그 많은 종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기독교는 자연관이 나빠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불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뭔가가 작용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天一一地一二人一三”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화 문제

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 이, 삼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 하늘을 일로 해서 원형으로 표시해 양이 되고, 땅을 이로 해서 사각형으로 표시해 음이 되고, 인간을 삼으로 해서 삼각형이 되지만, 그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운데에 “—”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천지인 합일의 개념이다. 그 가운데에 들어가는 “—”은 아까 얘기했던 인식 문제에 의한 거리를 말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궁극적인 절대자를 대신해서 하늘이 하늘이 될 수 있고 땅이 땅이 될 수 있으며 사람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없이는 자연이 자연이 될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이 될 수 없다.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다는 것이다. 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천도교에서 待天主라고 하는 것, 동양의 성현들이 ‘천지인이 다 원래 하나이다,’ ‘萬法歸一이다’라고 한 것이 모두 그런 것을 표현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로 돌아가는 것만을 강조하고, 모든 일을 一以貫之라고 해서 좁혀서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간화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과 오늘날 어떻게 위기에 처한 구원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숙제로 남겨 두기로 하였다.

질의응답 (사회 윤이흠)

사회: 선생님께서는 우선 달마가 왜 동쪽으로 갔는가? 그리고 사도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뭘까? 하는 물음으로 강연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문화의 교류를 통해서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지금은 태평양 시대로 세 단계로 발전해 왔는데, 태평양 시대에는 종착점이 역시 한국일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게 중요한 세계문화사의 여울목이고, 지정학적인 요처이고, 그리고 문화 변혁의 중심점이라는 사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계문화사를 거시적으로 볼 때 기원전 5세기를 전후해서 고전문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엄연하게 인정하듯이, 근대사를 객관적으로 본다면 한국이 그 어딘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태평양 시대에 들어 한국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에서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에 있어서 기독교가 기능을 할 때 결국은 동양 종교와 기독교가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종교와 종교가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문화 배경, 그 무대 속에서 만날 수 밖에 없다, 이 문화 배경을 선생님께서는 臺木이라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그 한국이라는 대목은 다른 말로는 한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서이겠고, 다른 말로는 세계문화사, 종교사의 역사적 맥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방법론적으로 상당히 미묘한 문제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목과 접목에서 유전이라고 하는 요인이 작용하는데, 그러므로 기독교가 한국의 동양 종교들과 만날 때 그 대목과의 관계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런 것에 관해 원로 학자님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대목의 성격을 천부경의 첫 구절들을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은 우선 몇 개의 질문을 한꺼번에 받아 놓고 선생님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논의의 물꼬를 트는 뜻에서 제가 우선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기독교가 풍류도, 말하자면 한국인의 종교적인 정서를 받아들여야 마땅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규범적, 당위적인 입장을 취하셨는데, 현상적으로는 기독교가 과연 그럴까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지금 과거 30년 동안 한국 기독교의 흐름으로 보아서 과연 선생님의 주장이, 또는 선생님의 가치 의식이 한국 교회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그런 모범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저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한국종교사의 맥락 안에서 기독교가 취해야 할,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와 사명을 언급하셨는데, 그러나 현실의 모양을 국외자로서 바라보면 참 답답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 경우에는 오늘 더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 갑갑함을 풀려면 뭔가 구체적인 비전(vision)이 보여야 할 텐데,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실제로 노력도 하시고 했으니까 저희의 갑갑함을 도닥거려 주실 수 있는 경험담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 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기독교 청년들이 가져야 할 위치와 또 한국 기독교 청년들을 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강연하신 것에도 그 전에 선생님 강의에서 말씀하신 것까지 연관 지어서 제가 평소에 궁금하게 여기던 풍류도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한국 민속의 구조와 기독교와의 관계에 대한 책들을 쓰시면서 해방 이후의 한국 무속 연구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상 한국 무속 연구에서 풍류도에 대한 발전은 참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문제는, 무속을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도나 신학을 하시는 분들 속에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기독교 자체 내에서 신용을 많이 못 받으셨다는 점입니다. 말씀, 로고스 같은 기독교적인 것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시면서도 무속적 풍류도의 중요성을 계속 부각시켜 오셨는데, 종교학에서나 또 다른 분야에서나 한국 문화를 기독교와 연관지어 연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선생님처럼 양쪽에 다 중요한 공헌을 하면서도 속된 말로 해서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바람직한 것이라고도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느 쪽에서도 비판을 안 받고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쪽에도 충분히 충실치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질문: 선생님께서는 종교간의 만남을 생명있는 나무의 접목에 비유해서 설명하셨는데, 기독교가 한국적인 영성에 접목되어 유기적인 작용을 일으켰다면 한국적인 특유의 기독교 모습이 일반적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결국은 두 가지 큰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한국의 영성을 연구하는 것의 위상 문제와, 한국 기독교의 오늘날의 과제, 현재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 현실적인 문제, 비전, 이렇게 두 문제로 나누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첫째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교인이 다른 종교를 연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신봉하고 있는 종교에 철저하게 충실하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병행되면 자기의 신앙도 더욱 확실해집니

다. 내가 40년대까지는 신학만 하다가 50년대에 들어와 한국 종교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나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적에 자기 입장이 분명히 서야만 정직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교권으로 탄압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는 거의 끊임 없이 열심히 해 왔는데, 내 나름대로는 분명히 복음에 대한 감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60년인가 62년부터 한국 민속 종교, 풍류도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때는 기독교에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 반발도 없었다. 그래서 특히 변선환 박사가 교단에서 징계를 하니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하는 이야기는 이미 60년대에 유동식이 다 했는데, 그 때에는 가만히 있더니 왜 나만 가지고 이러느냐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일찌감치 앞질러 가든가 아니면 아주 뒤에 하든가 하는 것이 안전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가 과연 얼마만큼 한국적인가? 『한국신학의 광맥』이라고 하는 책을 쓴 지가 벌써 5년인가 10년 됐는데, 거기에서 이 문제를 좀 다루어 보았습니다. 한국 종교사에는 한이라는 것과 삶이라고 하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보았는데, 한이란 하나의 초월적인 차원이고, 삶의 조건 문제를 짧게 삶이라는 말로 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활 문화, 예술 문화, 그리고 종교 문화, 이 셋으로 나누어서 한국 사상사를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나름대로 특색을 찾아 볼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서로 조화되어 왔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한국 사람들의 삶과 함께 한 역사는 사실상 아직 너무 짧습니다. 불교에서 볼 수 있는 한국적인 모습이라든가 성리학에서 볼 수 있는 한국적인 특성 같은 것은 잡아내기가 아직은 사실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피상적인 한국적 특색을 볼 수는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풍습이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되어 버렸고, 헌금하는 모양도 외국과는 다릅니다. 그런 한국적인 특색들이 어떻게 우리의 영성과 관계되는가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 보아야 밝혀질 텐데, 아마 역사가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저 학생이 청했듯이, 청년들의 태도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시고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내가 오늘 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당위성에 강조점을 두고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의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접목이라고 해도, 조금씩은 서로 반발하는 성

향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가 이미 수십년 동안 결성해 온 고집에서 비롯하는데, 그러나 고집이 없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이어 받은 전통을 넓힌다는 것이 그래서 아주 힘듭니다. 선교사들이 가져다 주었던 대부분의 보수 기독교가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신학계에서 문제가 된 것이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받을 길이 없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인데, 사실 성경에 예수 이름이라고 직접 명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시다 하는 말로 예수님이 호소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하는 말을 두고 역사적인 사건만 가지고서 결부시키려고 한다면 대단히 엉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 철저하게 커미트먼트(commitment)를 하라고 말하고 싶다. 기독교의 마지막 커미트먼트는 무엇이나 하면 결국 無我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석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 기독교에는 이것 빼놓고 나면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철저하게 충실하다면 어떻게 내 주장만 하고 남을 배척하려 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결국 나는 자꾸 복음 속에 청년 운동을 집어 넣으려고 하지 말고, 기독교 복음에 대한 철저한 커미트먼트를 실행한다면 이 세상에 대한 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철저한 내면화가 없이 속 알맹이가 흐리니까 어정쩡한 교회법 가지고, 그리고 사도신경에 대한 자기의 어중간한 이해를 내세워서 남의 의견에 대해 이단이라고 합니다. 세상일은 십자가에 죽어 없고, 그것 이외에 할레니 세레니 하는 것은 아무 쓸 데 없다고 했는데, 성경에 충실하다면 그런 말을 적당히 흘려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내면화의 고민은 적당히 해 놓고 자꾸 문화사업만 하는 데에 청년운동의 좌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운동이 본격적으로 신앙 문제에 달려 들어서 복음에 접근해 가는 것을 본령으로 삼는다면, 이런 문제가 차츰 풀려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강 이런 얘기인데, 교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비판을 받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해 달라고 하면 거리낌 없이 또 합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당위론이 얼마나 한국 교회에서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것이 궁금한데, 나는 역사적으로 그것이 반드시 구현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태평양 시대는 적어도 천년은 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사회: 앞으로 다가올 후천개벽이네요. 다가올 천년 태평양 시대.

답변: 미래는 현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먼 거리에 놓

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출발이 된 미래입니다. 교회 안에도 벌써 이런 싹이 한쪽에서 트고 있다고 봅니다. 나 자신이 그 싹의 하나입니다.

사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유동식 교수님의 풍류도가 빛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우렁찬 박수로 이 강연을 끝낼까 합니다.